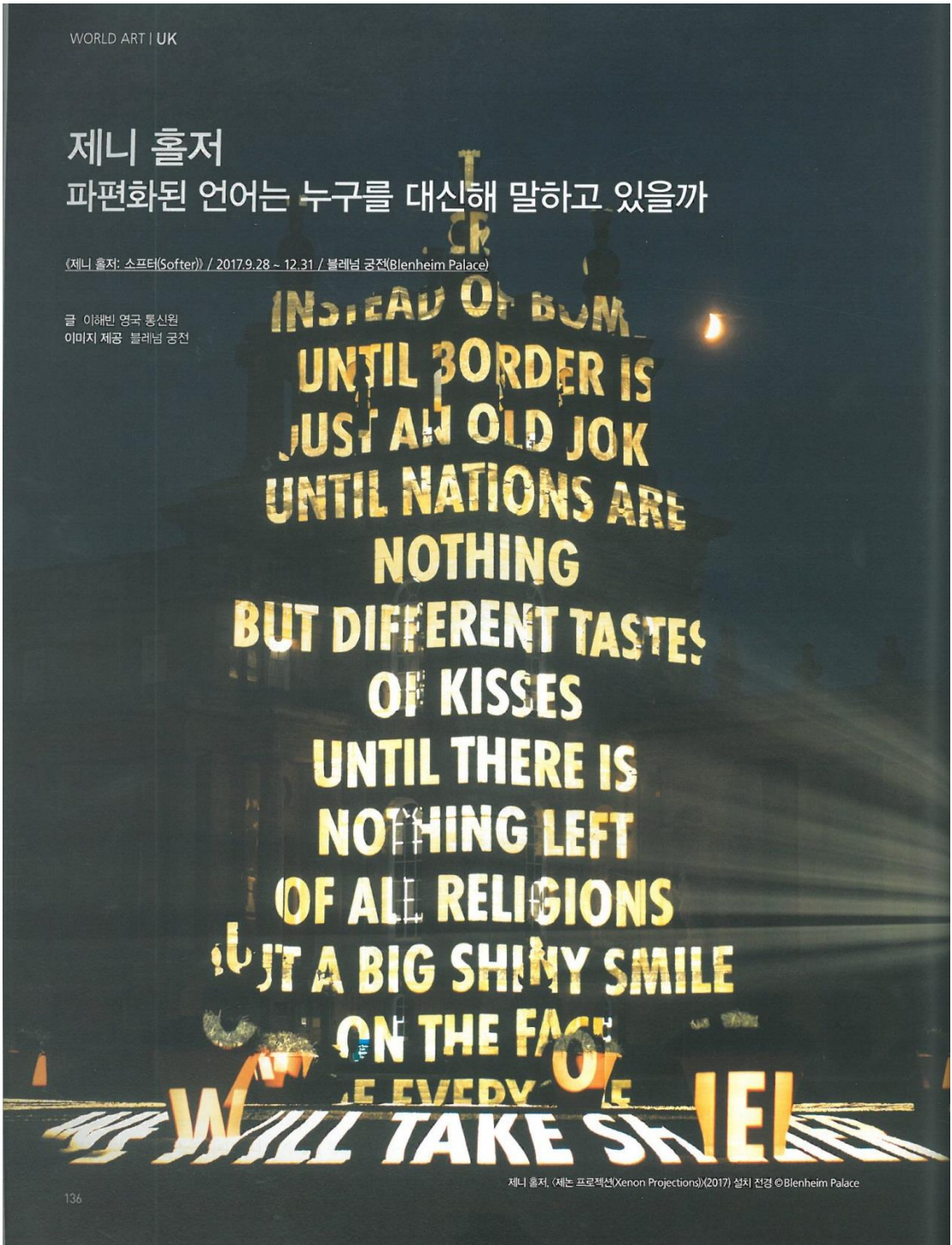


제니홀저 파편화된 언어는 누구를 대신해 말하고 있을까

January, 2018 | 이해빈

page 1 of 6



영국 남부 옥스퍼드셔에 위치한 블레넘 궁전(Blenheim Palace)이 현대예술가를 초대하여 궁전 전체를 미술작품으로 채우는 기획을 시작한 지 네 번째 해가 되었다. 2014년 아이 웨이웨이(Ai Weiwei)를 시작으로 로렌스 와이너(Lawrence Weiner), 미켈란젤로 피스토레토(Michelangelo Pistoletto)와 같이 국제적 명성을 지닌 예술가들에 이어 해당 기획을 주관하는 블레넘 예술재단이 선택한 네 번째 작가는 미국의 시각예술가 제니 홀저(Jenny Holzer)이다. 1970년대부터 특유의 유머러스한 어법으로 유인물이나 LED전광판들을 통해 “돈이 취향을 만든다(Money creates taste)”, “사유재산이 범죄를 일으킨다(Private property creates crime)”와 같이 소비자본주의를 조롱하는 짧은 구절들을 거리에 퍼뜨렸던 <트루리즘(Truisms)>(1978-87) 연작들로 가장 잘 알려진 그는, 90년대에 들어서서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를 명목으로 보스니아 여성들에 가해졌던 잔인한 성적 폭력과 무자비한 국가권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의 세 가지 시선을 통해 고발하는 <러스트모드(Lustmord)>(1993-94)와 같은 작업을 만들기도 했다.

여성 미술가로서, 미국인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시대가 억압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믿는 가치들을 꾸준히 문제 삼아 온 그가 블레넘 궁전에 자신의 목소리를 기입하는 기획이 다소 아이러니해 보이는 건 비단 바로크 양식의 거대한 규모로 지어진 궁전의 화려함 때문만은 아니다. 건물 자체가 지닌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궁전은 초대 말보로 공작(The first Duke of Marlborough)이 1704년 벌어진 블레넘 전투에서 프랑스 군대를 격퇴시켰다는 공로에 대한 대가로 앤 여왕(Queen Anne)이 그에게 내린 영화로운 전승 기념 선물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

신이 말보로가의 후손인 데다 제2차 세계대전 전시에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태어나고 문헌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2000년대 들어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무수한 전쟁들과 그런 처참한 구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난민과 희생자들의 삶을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홀저에게 여러모로 전쟁의 상징인 블레넘 궁전이라는 공간은 지독히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적절하기도 한 무대였으리라 말할 수밖에 없다.

홀저의 파편화된 문장들

대저택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는 곳은 그 앞에 펼쳐진 대 중정이다. 고전적인 바로크식 건축과 조경 문법에 따라 입구로 향하는 길에 2열로 줄지어 놓인 화분에 심어진 블랙 몬도 그라스(black mondo grass)의 풀잎 색깔은 불길하리만치 낯설고 겁다. 그 음산한 기운 속에서 궁전 입구를 향해 가다 보면 궁전 중앙회랑 안에서 단번에 홀저의 작품임을 알 수 있는 자극적인 푸른빛을 발산하는 기둥이 신경증적으로 반짝이며 돌아가고 있다(<선언(Statement)>(2017)). 회랑의 중앙 허공에 매달린 육면체 기둥의 각각 면을 LED 조명으로 훑고 올라가는 문장들은 고난 속에서 양자 대전을 겪었던 폴란드 시인 안나 스비르(Anna Swirszczynska)의 시구이거나 여러 기관들로부터 제공받은 시리아 난민들의 진술, 시리아 아사드 정권 하에서 고문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텍스트들은 산발적으로 추출되어 끊임없이 깜빡이며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착하기가 어려운 데다, 육면체 기둥 그 자체도 좌우로 기울어지거나 회전하기를 반복하기에 감상을 위



<소프트(Softer)> 외부 전시 전경 © Blenheim Palace



제니 홀저, <블랙 몬도 그라스(Black Mondo Grass)>, 2017 © Blenheim Palace

WORLD ART | UK

해 그 앞에서 일정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이런 형식은 대 서재에 위치한 말보로 공작의 흉상을 분수처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LED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여기에 쓰인 문장들은 영국 참전 군인들의 증언들로, 주로 그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 다시 일반 시민으로서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데 뒤따르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두 작업의 문장들은 서로 다른 입을 통해 전해진 것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국가권력이 주도한 전쟁이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기는지 방증한다.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에게 가해지는 무소불위의 힘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드는 난민의 수만큼이나 그 정도와 강도를 헤아리기 힘들 테지만 이는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그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은 법이 지니는 권위와 위상은 만민의 동의가 아닌 관습적 토대에 기대 형성되었기에 신비로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기대고 있는 토대와 사용하는 언어는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다. 반면 이

런 권위에 짓눌린 이들의 진술과 고백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기 에 시간을 거스르고, 또 그 때문에 일관성과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억압받고 있는 사람의 말은 절대 세상에 한 번에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흘저는 자신이 가장 잘 활용하는 매체를 통해, 즉 파편화되고 불연속적이고 특정 패턴에 따라 지속적으로 방해받으며 뚜렷한 인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다.

교묘한 반향: 리택션 페인팅 연작

블레넘 예술재단은 스스로가 베테랑 현대미술 콜렉터인 12대 말보로 공작의 형제 에드워드 스펜서-치칠 경이 현대 미술가들에게 새로운 전시 플랫폼을 제공하고 블레넘 궁전의 위상도 동시에 함께 홍보하려는 발상에서 설립한 재단이다. 그렇기에 기획된 전시들은 기본적으로 궁전을 찾는 관광객이나 일반 대중들에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예술적 언어의 힘보다는 눈요기로서의 스펙터클을 제공하려는 의지에 더 무게를 두려는 티를 벗어나



제니 홀저, 〈문답(Question Answer)〉(2014)과 〈비밀 9(Secret 9)〉(2017) 설치 전경 ©Blenheim Palace



1 제니 홀저, 《전자 신호(Electronic signs)》 설치 전경, 2017
©Blenheim Palace

2 제니 홀저, 《포위 3(Enclosure 3)》 설치 전경, 2017
©Blenheim Palace

3 제니 홀저, 《석조 조각(Stone Installation)》 설치 전경, 2017
©Blenheim Palace

지 못한다.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징물이자 장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궁전에 어떻게 다른 결을 입히고 다른 맥락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단지 궁전 내·외부 곳곳에 현대적인 작품을 산발적으로 '배치'하는 물리적 개입 그 이상을 말하기 위해선 어떤 실천들이 필요할까? 이와 같은 단조롭고 고질적인 질문에 대한 홀저의 다소 반항적인 응답에는 분명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그의 교묘한 반항은 역시 2004년도부터 착수한 회화 연작 <리덕션 페인팅(Redaction Paintings)>(2004-2017)들이 궁전을 채우는 방식에서 엿보인다.

언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왔던 이력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홀저의 '화가(painter)'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해당 회화들은 그 캔버스 표면만 보면 흡사 추상표현주의 회화 혹은 러시아 구성주의 회화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실은 그것들은 2000년대 미국에서 정보 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에

의해 대중에 공개된 미국 정부 문건의 일부를 확대하고 추상화하여 유화 혹은 수채화로 재현해낸 결과이다. 미국 정부문건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홀저가 주목한 건 국가 간의 불화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서로 다른 이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과 그들의 죽음에 대해 엇갈리는 증언,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의 손바닥 지문과 서명, 수용소에서의 심문지침과 그 지침을 넘어서서 성적,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당한 수감자들에게 대한 '수정된' 기록과 정보이다. 정보 역시 제 역사가 있는 물질로서 민주적으로 공개되기보다는 은폐와 억압, 권력의 역사와 더 밀착하기 쉬운 습성을 가져왔다고 말할 때 홀저가 이 정보물질을 서양현대미술사에서 '회화'의 전능한 가치를 뽐내는 극한의 추상화된 형식으로 재현해낸 데에는 교활한 의도가 들어있다. '리덕션'이라는 행위가 지니는 편집과 수정이라는 일차적 의미 뒤에 숨겨진 것이 특정 정보를 '가리는' 행위라면 이 과정은 결

WORLD ART | UK



제니 홀저
《뼈 작업(Bone Installation)》
(2014) 설치 전경
©Blenheim Palace

국 어떤 한 인간으로부터 실체를 빼앗아 그를 추상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추상 정보라니 형용모순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구체적이라 믿는 정보는 모두 유사한 여과 과정을 거쳐 우리 눈앞에 놓였다는 사실 자체를 홀저는 다시 미술의 어법으로 '추상화'시킨 것이다. 이 추상회화들이 궁전 내부에 전시된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열일곱 점에 달하는 리택션 페인팅들은 기둥 뒤나 회랑의 구석과 같은 궁전 곳곳에 숨어있듯 배치되거나, 초록색이든 붉은색이든 궁전의 각 내실을 지배하는 색깔과 호응하게 함으로써 작품들이 최대한 부각되지 않도록 위치시켰다.(마찬가지로 홀저의 다른 작품인 뼈 조각들은 중국식 도자기가 진열된 캐비닛에 함께 들어가 있고, 대리석 벤치 작업은 궁전 안의 다른 석조 조각과 나란히 놓였다.) 다른 진실을 함축하고 있어도 표면적으로는 모더니즘적인 색면회화들은 고전적으로 그려진 말보로 가족 일원의 초상화들이 걸린 공간에서 확연히 드러나 보이기에 충분하지만, 홀저는 이런 진부한 대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제는 프로젝션 연작¹

프로파간다 선전 문구를 연상시키는 볼드한 글씨체의 간결한 문

장들을 고수하며 언어를 주요한 매체로 내세우는 방법론에는 변함이 없지만, 홀저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을 발 빠르게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고 새로운 표현 양식들을 시도해왔다. 70년대 후반 길거리에 포스터를 붙이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에서부터 시작하여 <트루리즘(Truisms)> 연작에서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를 내려다보는 대형 전광판을 적극 활용했으며, 이런 실천들을 전시실 안에 들여온 형태로는 앞서 언급한 고속도로 경고 사인에서나 불 법한 붉은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작업들을 통해 선보여 왔다. 항상 신기술에 부지런한 관심을 가지는 작가인 그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큰 규모로 진행해 오는 프로젝트는 성당, 궁전, 도서관, 시청 등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거나 정치적 의미가 남다른 세계 곳곳의 건물 외벽에 '제는(Xenon)'이라는 새로운 조명 기술을 통해 특정 텍스트를 프로젝션하는 작업이다. 기존 프로젝션에 사용되는 조명에 비해 더욱 선명하고 강렬한 불빛을 발산하는 제는 조명으로 그가 건물 외벽에 쓰는 것은 주로 참혹한 전쟁을 겪은 동구권과 중동 지역의 국가에 살며 그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를 써내려간 소설가와 시인들의 글 속에서 발췌한 문장들이다. 선명하고 강렬한 조명으로 비친 텍스트들이지만 홀저는 이들을 파편화시켜 뚫어지게 보



《소프트(Softer)》 내부 전시 전경 ©이매진

지 않으면 무슨 말들인지 쉽사리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문장과 문장이 위아래로 뒤섞이고 서로 흡수되면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보이는 모습은 마치 이 문장들을 내뱉는 주체들이 말하는 방식을 시각화한 듯하다. 국가에 소속은 되어있지만 소속감과 권리는 약탈당한 채 펴박받으며 사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단하고 치밀하기보다는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다. 이 와중에 드러나는 폭력을 암시하는 단어나 문구들이 더욱 강력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텍스트들이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느낌의 반투명 형식으로 프로젝션 되는 탓이다.

2001년 이후로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쓴 텍스트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지 않는 홀저의 예술적 실천의 변화를 특별한 예술가적 결단의 징후로 읽는다면, 그것은 어떤 윤리의 전환이라 불러야만 할 것 같다. 1인칭 화법으로 '나' 혹은 '우리'로 시작하는 경우일지라도 그녀의 문장들은 온전히 개인적인 고백으로 들리기보다는 미명의 목소리에 의한 선언이나 진술에 가깝고 여전히 정치적이었지만, 자신의 글쓰기 대신 선택한 문장들이 어떤 입을 통해 전달된 것인지 살펴보면 전환의 의도가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전쟁 난민, 독재 하에 고문당한 정치사범, 남성적 국가 권력의 희생자인 여성 문학가 등이 들려주는 파편화

된 말들을 공공 공간에 비추어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버리는 일이 곧 그에 수반된 책임감을 포기하는 일은 아니다. 매체와 주제를 달리하며 벌여온 40여 년의 활동 기간 동안 늘 시대가 당면한 정치적 사건이나 현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하지않던 작가가 맞닥뜨린 2000년대는, 국가권력이 강력해진 만큼 의지할 만한 울타리로서의 신뢰도 잃은 시대이자 더 많은 삶들을 불안한 상태로 내모는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였다. 미국인이기에 이런 시대의 잔인함을 더욱 가까이서 목격한 홀저는 자신이 생산할 수 있는 텍스트의 밀천이 바닥을 드러내 보였다고보다는 예술가 개인이 더 이상 누군가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접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 점에서 권력과 전쟁을 온몸으로 상징하는 블레넘 궁전에서 진행된 개인전 제목 《소프트(Softer)》, 즉 '더 부드럽게'는, 더 이상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와중에 유일하게 작가 개인의 목소리로 세상에 던지는 일종의 주문으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

1 《소프트(Softer)》 전시를 제외한 제니 홀저의 제논 프로젝트 연작들은 전부 웹사이트 jennyholzer.com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다.